

길가면 검붉은 흑자국이 남았다. 흑자국은 거멓고 우둘투둘한 아스팔트에 놀라 불어 말리갔다. 나는 힐끔거리며 피해 달렸다. 자살로 처리됐을 것이다. 과실치사도 상해치사도 아닌. 고작 이십대에 불과했다. 그 후 며칠간 비가 내렸다. 빗물에 씻긴 흑자국이 희미해질수록 그것은 내안으로 침투했다. 고요하고 적당히 어둠이 내리는 곳에 뿌리를 내렸다. 나는 서둘러 이사를 가야한다고 외쳤다. 정신이 반쯤 나가있었다. 승우는 그런 나를 말없이 지켜봤다. 편찮다는 말로 애써 위로하려 들지도 않았다. 별에 그을린 얼굴에 복잡한 심경이 스쳤지만 곧 지워졌다. 어떻게든 옆집에서 벗어나야 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 운운하며 말렸지만 그도 알았을 것이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전화기 너머로 알겠다는 말을 듣기까지 나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시를 가기 전까지 나는 밖으로 나들았다. 옆집에서 소리가 들려도 금씩했고 들리지 않아도 금씩했다. 윗집 게임 유튜버가 지껄이는 소리에 오히려 귀를 콩긋 세웠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참동안 문을 노려봤다. 집을 벗어나 하염없이 걸었다. 초여름의 습한 열기에 정신이 아득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가장 편한 서점으로 갔다. 대형쇼핑몰에 딸린 서점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평소 하던 대로 창가에 있는 기다란 테이블에 앉았다. 시원한 공기에 땀을 식히며 자격증 공부를 했다. 옆에는 고전 네 권을 올려두었다. 불편을 들고 열심히 밑줄을 긋고 있던 중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여기서 다른 용무를 보면 안 됩니다. 이 수험서도 가지고 온 것 같네요.”

나는 할 말을 잊고 매니저를 빤히 올려다봤다. 늘 했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걸까. 옆에 있는 고전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책을 사려고 하는데도 안 되나요.” 매니저는 그래도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서점을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

두발은 멈추지 않았다. 발바닥이 아파 절뚝거리면서도 무작정 걸었다. 가방엔 책 한 권과 수험서가 들어 있었다. 매니저의 단호한 말투가 칼에 맴돌았다. 걸음을 멈추고 가방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차마 던지지 못하고 끈적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걸어갔다.

빗물에 씻긴 흑자국이 희미해질수록 그것은 내안으로 침투했다.

고요하고 적당히 어둠이 내리는 곳에 뿌리를 내렸다.

나는 서둘러 이사를 가야한다고 외쳤다.

정신이 반쯤 나가있었다.

거대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상가에는 하나둘 상점들이 입점했다. 나는 공인중개소 유리벽에 붙은 안내문들을 하나씩 살폈다. 얼마나 대출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는지. 일을 그만둔지 세 달이 되어 생활비도 빠듯했다. 며칠 뒤에는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다.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상가 끝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암녹색 천막으로 둘러친 전면엔 ‘오픈 예정’이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그 안에서는 그라인더 갈리는 소리와 드릴과 공구를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텅 빈 내부를 채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릴 것이다.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더위를 피해 잠시 쉴 곳이 필요했다. 분식집이라도 들어갈까 고민하다 고개를 저었다. 창 너머로 삼삼오오 모여 앉아 분식을 먹는 사람들이 보였다.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떠드는 소리가 내 발걸음을 불잡았다. 나는 걸음을 들렸다. 따기운 별에 한껏 달궈진 거리를 다시 걸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더니 몸이 휘청거렸다. 흐

릿한 시야 너머로 십자가가 들어왔다. 이상하게도 그 십자가가 거북스럽지 않아서, 일단 그곳으로 가볼까 싶었다. 성당은 고요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향해 가다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상가로 돌아와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김밥 두 줄 포장해주세요.”

실내 공기는 놀라울 만큼 차가웠다. 가게는 바깥에서 보던 것만큼이나 시설이 깔끔했다. 머리와 옷차림이 단정한 아이들이 지칠 줄 모르고 재잘거렸다. 부모들은 음식을 입안에 넣고 대화하느라 바빴다. 버튼을 누르듯 갑자기 웃음을 터져 나오기도 했다. 나는 출입문 앞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막지 않았다. 저들의 웃음이 전염되길 바랐다. 아이들의 싱그러움이 조금이라도 내안에 뿌리내리길 바랐다.

나 는 베란다 윈도우에 앉아 말테의 수기를 펼쳤다. 빌라 4층에는 제법 넓찍한 베란다가 있었다. 그러나 얼마 못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물결치는 나무를 조용히 응시했다. 집 앞에는 나무가 무성한 동산이 있다. 엽록소가 사라진 뒤 나뭇잎은 점차 물들어갔다. 나는 혼란하게 물든 나무가 아닌, 녹색을 유지하며 생육을 이어가는 가시나무를 관찰했다. 행인들은 가시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를 무심히 밟고 지나갔다. 간혹 허리를 한껏 긁혀 도토리를 줍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거리를 보면서도 서서히 번져가는 붉은 잎을 의식했다. 꽃들이 흘러내듯 공중에서 강렬한 빛이 내렸다. 반쯤 감긴 두 눈과 두툼한 입술과 긴 머리칼에도.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는다. 그 래, 여자는 조금 일찍 갈을 뿐이다. 그러니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를 치별한다 해도 여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커피 맛도 어쩐지 수상했다. 나는 아물질이 들어갔는지 확인했다. 녹슨 물이 섞인 듯 입안이 텁텁했다. 쇠가루가 들어가기라도 한 걸까. 승우 작업복에는 미세한 쇠가루가 붙어 있었다. 조심한다고 해도 집안 어딘가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 나무들이 계속 흔들렸다.

어떤 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벌떡 일어났다. 여전히 수상했다. 나는 눈살을 한껏 구기며 창

앞

테이블의 외인님이 술에 취해 쓰러졌다. 와인잔이 넘어지며 테이블을 적셨고 붉은 와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남자는 사각테이블에 고꾸라진 채 잠들었다. 책과 휴대폰이 떨어져버렸다. 바코드가 붙은 책이었다. 배상을 해야 할 텐데. 그때 남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와인에 흡뻑 젖은 채 울려댔다. 나는 전화를 대신 받아야 할지 망설였다. 다행히 바테이블 안쪽에 있던 알바생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정리했다. 나는 외인님을 한심한 눈길로 바라봤다.

나는 술을 믿지 않았다. 평소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마신 게 언제인지 가늠하지 못할 만큼. 술주정하는 자들을 지켜보는 것도 지겨웠다. 아버지도 매일 마셨다. 손을 텔랄 텔면서도 기어코 잔을 들었다. 술을 마시면 무거운 입이 열렸고 모진 말들이 쏟아졌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마냥 좋았다. 그 시절에 아빠는 머리가 거멓고 훈칠했었다. 나는 아빠 옆에 가만히 앉아 손길을 기다렸다. 아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는 대신 담배연기만 연신 뿜어댔다. 거실 창틀에는 솔담배와 88과 THIS가 번갈아가며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연기가 좋았다. 아빠가 뿐이 내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연신 뿐아들었다. 며칠 간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면 거실 창틀에 앉아 노래를 불렀다.

어제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밖에 끔나리에 애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크레파스 병장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나는 매번 두 구절을 빼먹고 불렀다. 지금도 무심코 노래를 부를 때가 있다. 술과 담배는 아버지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제 아버지는 지지지 않고 폭언을 해댔다. 아버지의 꼭꼭이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입을 틀어막고 싶었다. 어머니는 안주를 준비하고, 식탁에 앉아 같은 말을 듣고 또 들었다. 그러다 어머니도 한두 번 솔이 늘었다.

여전히 눈이 부셨다. 삼각형 마티니잔의 가는 스템을 잡고 연거푸 마셨더니 카테일이 금세 사라졌다. 감각이 점차 무뎌졌다. 눈이 부셔서 견딜 수 없었다. 휴대폰은 종일 울려댔다. 진동이 멈추자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9통이라고 떴다. 이제 앞 테이블은 텅 비었다. 외인남은 이곳에 살 것이다. 멀진 상가가 뛰어난 신축아파트. 나는 왼손을 들어 머리를 움켜쥐었다. 술기운 때문인지 온갖 녹색이 어우러져 숲이 깨어나는 것만 같았다. 그러다 보고야 말았다. 숲 속에 떠 있는 달을.

달은 지구 그림자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갔다. 생전 처음 마주한 붉은 달을 보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구나. 너는 거기에 있었구나. 겁붉은 달을 노려봤다. 흐릿했던 소리가 일사분란하게 배열되며 선명하게 들렸다. 죽여 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 세포변이를 일으키듯 소리가 다르게 들리기도 했다. 죽여 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 날을 베는 듯 응집된 소리가 쏟아졌다. 이이어를 다급하게 졌다. 죽여 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 소리는 안팎으로 휘몰아쳤다. 속이 역류되듯 울렁거렸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느다란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뭔가를 불잡으려했다. 나는 휘청거리며 회양목 사이를 지나갔다. 저 끝에 갈색 책장이 보였다.

승우는 모니터 세 대, 본체 두 대로 리니지 게임을 했다. 십년 넘게 리니지만 하는 정통파였다.

승

우는 한 벽면을 차지한 갈색 책장은 두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책장은 집 만 달리 할 뿐 언제나 거실에 있었다. 이사를 준비할 때마다 승우는 양손을 허리에 걸친 채 책을 치운다. 책을 치운다. 나는 개의치 않고 칸마다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우고 돌봤다. 서로의 자산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린 알고 있었다.

승우는 모니터 세 대, 본체 두 대로 리니지 게임을 했다. 십년 넘게 리니지만 하는 정통파였다.

NPC는 지칠 줄 모르고 아우성이다. 살려줘, 살려줘(소년 또는 아이), 만나서 반가워요(소녀 또는 여성),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캐릭터가 위험합니다(남성), 물약이 떨어졌습니다(남성). 승우는 침침한 거실에서 모니터 세 대가 발산하는 빛 속에 앉아 있었다. 한때는 혈맹을 이끌던 군주였고 꽤 큰돈을 만졌던 시절도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거실에서는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아우성이었다. 나는 침실 문을 닫았다.

을 흘려주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승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때리기만 해봐, 그럼 끝장이야.”

승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승우는 내 눈을 피했다. 거친 육설을 내뱉으며 하늘색 서클레이터를 집어 던졌다. 그가 이 집으로 들어올 때 들고 온 거였다. 서클레이터는 산산이 부서져 바닥을 나뒹굴었다. 그는 비싼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는 손대지 않았다. 그 외중에 부숴도 될 만한 물건을 고른다는

나는 고개를 들어 대형화면에 떠 있는 달을 봤다.

지구 그림자가 이탈하면서

깎여나간 달이 다시 재생되었다.

핏빛을 띠던 달은 점차 은빛을 발산했다.

게 조금 우스웠다. 그런 다음 승우는 주먹으로 안방문을 내리쳤다. 문이 움푹 들어갔다. 주먹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나는 씩씩거리며 그가 현관으로 가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 노려봤다.

누 군가가 내 팔을 만지고 있었다. 눈을 슬쩍 떴다. 실내를 찾는 내 팔을 주물렀다. 팔을 주무르며 한 번씩 원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보곤 했다. 악몽을 꿀 때마다 승우는 내 팔을 다독이고 양팔을 번갈아가며 주물러주었다. 강도를 조절해가며 내가 다시 잠들기까지 매번 그랬다. 나는 옆드린 채 그런 승우를 지켜봤다. 그는 외인남보다 불편 없고 심지어 나이든 사장만도 못했다. 그는 쇳가루와 땀 냄새가 배운 흰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염색도 소홀한 헛에 옆마리에 흰머리가 성성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대형화면에 떠 있는 달을 봤다. 지구 그림자가 이탈하면서 깎여나간 달이 다시 재생되었다. 핏빛을 띠던 달은 점차 은빛을 발산했다.

“왜 그래, 편찮아?” 승우는 원손을 펴 내 눈앞에 서 흔들었다. 나는 승우의 눈을 빤히 쳐다봤다. 폭꺼진 눈에 고단함이 배어 있었다. 흰자위는 실핏줄이 얹혀있고 까만 동공은 조용히 열렸다가 수축되었다. 꿈속에서 앞자와 시비가 불었다. 앞자와 속도를 줄이더니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승우도 기다렸다. 드는 차에서 내렸다. 중년의 압박한 얼굴을 한 남자가 승우에게 다가왔다. 사람들이 하나님 모두 모여들어 두 사람을 익워졌다. 나는 차안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다. 앞자 운전자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행동은 침착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겪어본 듯한 몸놀림이었다. 얼굴 윤곽은 흐릿했는데 이상하게 눈빛만은 강렬했다. 나는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그때 압박한 남자가 외투 안에서 편자를 끼웠다. 남자는 흥기를 손에 들고 승우를 끌어안았다. 승우는 움찔하더니 두 눈이 점점 커졌다. 굳게 닫혀있던 입이 벌어졌고 두 눈이 기이하게 커지더니 초점을 잃어갔다. 나는 사색이 된 채 망설였다. 뒤로 나가 할 지문을 잡아야 할지. 육신거리는 명치를 부여잡고 손을 헐떡거렸다.

승우는 차단한 내 손을 놓지 않았다. 테이블 맞은 편에 앉아 자신의 체온을 전해주었다. 눈빛은 사뭇 진진하면서도 대정하고 급기야 장난스럽기까지 했다. 나는 눈을 짙은 감았다. 손에 흥기를 주는 남자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나는 원손으로 책 한 권을 꽉 쥐고서 다시 승우의 눈을 봤다. 그 눈은 살기를 띠지도 부리부리하지도 않았다. 끝지도 눈이 부시지도 않았다. 흐릿한 눈에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가소로웠다. 나는 피식 웃으며 책을 쟁겼다.

〈끝〉

단편소설 당선 소감

“단단한 빛에 가닿기 위해 들여다봐야 했다”



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밀봉된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시 해집어야 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단단한 빛에 가닿기 위해.

임승훈 작가님과 함께 글 쓰는 문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곁에서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친구와,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와, 언제나 내 편인 가족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글을 읽어주신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982년 고흥 출생
▲ 인덕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졸업

단편소설 심사평

“불안을 불온한 발화로 전달하는 필력 뛰어나”



신선한 가운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노골적이어서 마치 주제를 시연하려고 세 사람을 불러 세운 것처럼 보였다. 유품을 매물로 내놓은 이유가 애도의 방식이라는 진실 역시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저씨 줍다’는 난데없이 난입한 이웃 아저씨와의 사연을 블랙코미디처럼 다루고 있다. 아저씨는 문을 밀고 들어온다. 그는 유품을 매물로 내놓은 이유가 애도의 방식이라는 진실 역시 이해하기 어려웠다.

다음 네 편이 눈에 띄었다. ‘문 앞의 시간’은 시스템에 갇힌 택배 노동자의 이야기를 활성화하고 미스터리적 기법으로 다루고 있다. 시스템의 무한반복성과 노동(자)의 복제라는 핵심 키워드를 서술자의 언술로 제시할 뿐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어느 보통날에 우리는…’는 중고거래앱을 통해 만난 세 인물이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설정이

로 제시한다. 여자는 원룸에서 생활할 때 투신한 이웃이 있었고 그 죽음을 목격한 바 있다. 위험에 처한 자살자를 돋지 못했다고 자책한다. 그리고 유년기에 아버지의 폭력을 겪었고, 최근에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근래에 많이 다루어진 소재이지만 불안을 불온한 문장으로 발화하는 방식에서 이 소설의 성취가 간단치 않다.

소설은 인물의 사연보다 그녀가 얹는 불안의 심금을 체감하게 한다. 선명한 통증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삶의 기미를 포착하는 솜씨와 그 무늬를 매우 개성적으로 새겨내는 필력에 신뢰가 있다. 신인을 반갑게 맞는다.

▲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졸업
▲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다수
▲ 국립순천대 문예창작학과 교수